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김자숙¹, 김수현^{2*}

¹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²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Predictive Factors of Positive Thinking, Perceived Health Status and Aging Anxiety on the Meaning of Life in Middle-aged Women

Ja-Sook Kim¹, Suhyun Kim^{2*}

¹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J도와 G광역시 중년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rson's correlation,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긍정적 사고와 지각된 건강상태($r=.43, p<.001$), 긍정적 사고와 삶의 의미($r=.54, p<.001$), 지각된 상태와 삶의 의미($r=.3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사고와 노화불안($r=-.20, p=.021$), 지각된 상태와 노화불안($r=-.4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r=-.10, p=.2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beta=.52, p<.001$)와 월경상태($\beta=-.22, p=.003$)는 삶의 의미($F=32.49, p<.001$)를 32.8%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중년여성,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삶의 의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middle-aged women's positive thinking, perceived health status, aging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analyz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meaning of life. This study was approved by IRB (1040117-202208-HR-024-01), from September 10, 2022 to February 28, 2023, data were collected from 130 middle-aged women.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26.0 version. Positive think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r=.43, p<.001$), positive thinking and meaning of life($r=.54, p<.001$), perceived health state and meaning of life($r=.31, p<.001$)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ositive thinking and aging anxiety($r=-.20, p=.021$) and perceived health state and aging anxiety($r=-.46, p<.001$)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ging anxiety and meaning of life($r=-.10, p=.281$)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meaning of life among middle-aged women were found to be positive thinking ($\beta=.52, p<.001$), menopausal status ($\beta=-.22, p=.003$), with meaning of life ($F=32.49, p<.001$) explaining 32.8%. As the positive thinking of middle-aged women has been identified as a predictor of the meaning of lif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o promote positive thinking of middle-aged women.

Key Words : Middle-Aged Women, Positive Thinking, Perceived Health Status, Aging Anxiety, Meaning of Life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the presentation materials presented at the 2023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Suhyun Kim (ksh136112@mnu.ac.kr)

Received July 25, 2024

Accepted August 20, 2024

Revised August 8, 2024

Published August 28,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단계에서 인생 최고의 절정기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재평가 및 성찰이 이루어지는 삶의 전환기이다. 그러나 중년기는 신체적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신체기능이 노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찾아오는 불안,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새롭게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감과 가정 또는 사회에서 경제력과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발달 단계의 과업 달성 과정에서 정신적·심리적 쇠약감을 동시에 경험한다[1]. 특히 중년기에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함께 위기감을 더 크게 경험하는데[2]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폐경과 노화로 인해 위기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즉, 호르몬 변화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위기감, 역할 상실, 불안, 우울, 긴장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야기된다[1]. 따라서 중년여성이 노화에 적응해 나가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성공적 노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정신·심리적 건강에 대해 개인적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3].

삶의 의미란 개인 각자가 지닌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정의된다[4]. 삶의 의미는 삶의 위기나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자원으로[5]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과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6].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높은 행복감과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더 높게 느낀다[7].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더 느끼고, 고독하거나 신경증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8].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중년여성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사고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일상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도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주도적 대처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9].

Chang[10]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긍정적 사고였으며,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낮은 긍정적 사고를 보여주는 상관관계[9]가 보고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긍정적 사고를 통한 인지변화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중년여성이 갖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도 있다[10]. 따라서 긍정적 사고는 중년여성이 갖는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지각된 건강상태란 임상적으로 측정된 자료가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의미한다[11]. 과거 건강상태를 평가할 때는 임상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자가 보고되는 설문행위에 응답한 개인의 주관적 건강지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할만하다는 보고들이 있어[12]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예측하는 데 지각된 건강상태가 강조된다. 중년여성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적 기능의 쇠퇴를 함께 경험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신체적, 심리적 피로감도 경험하고 있다[13]. 이러한 중년기의 건강상태는 노화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신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노년기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도 있다[13]. 중년기 여성들은 이와 같이 신체적·정신의학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14].

노화는 자연스럽고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신체적 변화와 함께 마주하게 되는 이전 젊은 상태의 상실과 기능 축소의 경험은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려움은 불안형태의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15]. 노화불안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16]이며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17]. 중년여성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자신의 노화현상을 받아들여지게 하여 노화불안을 가중시킨다[1]. 선행연구에서도 노화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거부감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갖게 하며 결국 노인차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이러한 상황들은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이전보다 연장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공적인 노후 적응을 위해서는 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화불안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9.2%로 집계되어 곧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19]. 따라서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삶의 의미 등의 각각의 영향력만을 확인하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긍정적 사고와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여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와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 정도를 확인하여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를 높여 건강한 노년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중재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첫째,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정도를 규명하고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도 및 G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 이

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연구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 산정은 G-Power program 3.1.9.7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05, 중간 효과 크기(median) .15, 검정력(1-β) 90%,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예측 변수(number of predictor)를 7개로 설정한 결과, 표본 수는 130명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대략 15%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자 수로 결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137부가 회수되어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3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 가족수, 자녀수, 교육정도, 종교, 직업 형태, 월 총수입, 취미생활 유무를 조사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은 기저질환 유무, 월경 상태, 1주일 평균 운동 횟수를 조사하였다.

2.3.2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Kim et al[20]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긍정적 사고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사고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주관적 만족 13문항, 목표추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90이었다.

2.3.3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Speake, Cowart와 Pellet[21]가 개발하고 Kim[22]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매우 나쁘다' 1점, '매우 좋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Kim[22]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2.3.4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23]가 개발한 Anxiety about Aging Scale(AAS)를 기본적인 개념들로

하여 Lee와 You[24]가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화불안 척도는 총 19문항이며 신체적 기능 약화, 외모 변화에 대한 걱정, 사회적 무가치감, 노년에 대한 부정적 기대라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높은 점수로 나타날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보여준다. Lasher와 Faulkender[23]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이었고, Lee와 You[24]의 연구에서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다.

2.3.5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Steger et al.[25]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Won et al [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의미 도구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 또는 추구인 의미추구(Search) 5문항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의미발견(Presence)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언제나 그렇다' 7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삶의 의미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시행 전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040117-202208-HR-024-01)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보조원을 섭외하여 자료 수집 전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동의서 내용 및 서면 동의서 작성 안내, 설문지 수거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한 후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공원,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설명문을 제공하였으며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설문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외로만 이용되며 설문 중간이라도 설문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느 때든지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소요 시간은 약 15분 이내로 설문지 작성 후 답례를 위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6.0 version을 사용하여 유의수준($p < .05$)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는 실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30명으로 연령은 40세~50세 미만 33명(25.4%), 50세~60세 미만 97명(74.6%)이며, 평균 연령은 52.42 ± 5.72 세로 나타났다. 남편 유부는 있음 106명(81.5%), 없음 24명(18.5%)이었으며 동거 가족수는 1명 이하 23명(17.7%), 2명 26명(20.0%), 3명 37명(28.5%), 4명 이상 44명(33.8%)이며, 평균 동거 가족수는 2.87 ± 1.39 명이었다. 자녀수는 1명 이하 28명(21.5%), 2명 72명(55.4%), 3명 이상 30명(23.1%)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93 ± 0.95 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64명(49.2%), 전문학사 25명(19.2%), 학사 이상 33명(25.4%)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있음 81명(62.3%), 없음 49명(37.7%)이었으며, 직업 형태는 정규직 59명(45.4%), 비정규직 37명(28.5%), 가정주부 34명(26.2%)으로 나타났다. 월 총수입은 300만원 미만 33명(25.4%),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7명(28.5%), 500만원 이상 60명(46.2%)으로 나타났다. 취미 유무는 있음 87명(66.9%), 없음 43명(33.1%)이었으며 기저질환 유무는 있음 49명(37.7%), 없음 81명(62.3%)이었다. 월경상태는 규칙적 31명(23.8%), 불규칙적 16명(12.3%), 폐경 83명(63.8%)이었으며 1주일 평균 운동 횟수는 안함 21명(16.2%), 1일 이상~3일 이하 46명(35.4%), 3일 이상~5일 이하 37명(28.5%), 5일 이상 26명(20.0%)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Age (yrs)	40≤~<50	33(25.4)	52.42±5.72
	50≤~<60	97(74.6)	
Spouse	Yes	106(81.5)	
	No	24(18.5)	
Cohabiting Family	≤1 people	23(17.7)	2.78±1.39
	2 people	26(20.0)	
	3 people	37(28.5)	
	≥4 people	44(33.8)	
Children	≤1 people	28(21.5)	1.93±0.95
	2 people	72(55.4)	
	≥3 people	30(23.1)	
Education	≤High school	64(49.2)	
	College	25(19.2)	
	≥University	33(25.4)	
Religion	Yes	81(62.3)	
	No	49(37.7)	
Job	Full-time employee	59(45.4)	
	Non-regular worker	37(28.5)	
	Housewife	34(26.2)	
Monthly Income (won)	<3,000,000	33(25.4)	
	3,000,000≤~<5,000,000	37(28.5)	
	≥5,000,000	60(46.2)	
Hobby	Yes	87(66.9)	
	No	43(33.1)	
Disease	Yes	49(37.7)	
	No	81(62.3)	
Menstruation	Regular	31(23.8)	
	Irregular	16(12.3)	
	Menopause	83(63.8)	
Exercise (days)	No	21(16.2)	
	1≤~<3	46(35.4)	
	3≤~<5	37(28.5)	
	≥5	26(20.0)	

3.2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정도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는 5점 만점에 3.59±0.48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주관적 만족 3.59±0.50점, 목표 추구 3.58±0.5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13±0.82점이었으며, 노화불안은 5점 만점에 3.04±0.63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신체적 기능 약화 3.42±0.76점, 외모 변화에 대한 걱정 3.04±0.99점, 노년에 대한 부정적 기대 3.00±0.87점, 사회적 무가치감 2.87±0.92점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7점 만점 4.80±0.90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의미 추구 4.81±0.93점, 의미 발견 4.77±1.06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는 연령 (t=-2.471, p=.015), 총 월수입(F=4.24, p=.017), 취미 유무(t=2.74, p=.007), 월경 상태(F=4.85, p=.009), 1주일 평균 운동 횟수(F=2.77, p=0.44)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변수에 대해 사후 검정한 결과 총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 집단이 '300만원 이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의미가 높았고 월경상태에서 '폐경' 집단이 '규칙적 월경' 집단보다 삶의 의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1주일 평균 운동 횟수는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2. Degree of positive thinking perceived health status, aging anxiety and meaning of life.

(N=130)

Variables	M±SD	Min	Max	Scale range
Positive thinking	3.59±0.48	2.78	5.00	1-5
Personal satisfaction	3.59±0.50	2.62	5.00	1-5
Goal pursuit	3.58±0.59	2.20	5.00	1-5
Perceived health status	3.13±0.82	1.00	5.00	1-5
Aging anxiety	3.04±0.63	1.63	4.53	1-5
Physical weakness	3.42±0.76	1.00	5.00	1-5
Concern about changes in appearance	3.04±0.99	1.00	5.00	1-5
Social valueless	2.87±0.92	1.00	5.00	1-5
Expectations of old age	3.00±0.87	1.00	5.00	1-5
Meaning of Life	4.80±0.90	3.00	7.00	1-7
Meaning of Life-Search	4.81±0.93	3.00	7.00	1-7
Meaning of Life-Presence	4.77±1.06	2.22	7.00	1-7

Table 3. Differences in meaning of life acco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y	Meaning of life	
		M±SD	t or F(p) Scheffé
Age (yrs)	40~<50	4.48±0.81	-2.47(.015)
	50~<60	4.92±0.90	
Spouse	Yes	4.81±0.86	.08(.938)
	No	4.79±1.05	
Cohabiting family	≤ 1people	5.08±1.05	2.04(.112)
	2 people	4.76±0.77	
	3 people	4.77±0.97	
	≥ 4 people	4.71±0.81	
Children	≤ 1people	4.49±0.97	2.67(.073)
	2 people	4.83±0.90	
	≥3 people	5.03±0.74	
Education	≤high school	4.85±0.90	.28(.759)
	College	4.69±0.70	
	≥University	4.80±1.00	
Religion	Yes	4.90±0.90	1.53(.129)
	No	4.65±0.87	
Job	Full-time employee	4.91±0.99	2.09(.128)
	Non-regular worker	4.88±0.71	
	Housewife	4.53±0.86	
Monthly income (won)	<3,000,000a	4.48±0.98	4.24(.017) c)a
	3,000,000≤~<5,000,000b	4.73±0.69	
	≥5,000,000c	5.02±0.91	
Hobby	Yes	4.94±0.96	2.74(.007)
	No	4.53±0.69	
Disease	Yes	4.92±0.91	1.88(.062)
	No	4.61±0.86	
Menstruation	Regulara	4.47±0.76	4.85(.009) c)a
	Irregularb	4.52±0.91	
	Menopaussec	4.98±0.90	
Exercise (days)	No	4.59±0.68	2.77(.044)
	1≤~<3	4.71±0.89	
	3≤~<5	4.73±0.97	
	≥5	5.23±0.85	

3.4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와 지각된 건강상태($r=.43, p<.001$), 긍정적 사고와 삶의 의미($r=.54, p<.001$), 지각된 상태와 삶의 의미($r=.3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사고와 노화불안($r=-.20, p=.021$), 지각된 상태와 노화불안($r=-.46,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r=-.10, p=.2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N=130)

Variables	Positive thinking	Perceived health status	Aging anxiety	Meaning of life
	r (p)	r (p)	r (p)	r (p)
Positive thinking	1	.43(<.001)	-.20(.021)	.54(<.001)
Perceived health status		1	-.46(.001)	.31(.001)
Aging anxiety			1	-.10(.281)
Meaning of life				1

3.5 대상자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삶의 의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월수입, 취미, 월경상태, 1주일 평균 운동 횟수를 더미변수 처리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2.49,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규분포성, 잔차의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1-1.0으로 0.1 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1.97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잔차분석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이 1.99로 2와 근접해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상호독립성도 만족하였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긍정적 사고($\beta=.52, p<.001$)와 월경상태($\beta=-.22, p=.003$)로 나타났으며 삶의 의미($F=32.49, p<.001$)를 32.8% 설명하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eaning of life (N=130)

Variables	B	S.E.	β	t(p)	VIF
(Constant)	1.49	.49		3.01(.003)	
Positive thinking	.97	.14	.52	7.17(<.001)	1.008
Menstruation	-.41	.14	-.22	-3.04(.003)	1.008
Adjusted R ² =.328, F=32.49, p<.001, Durbin-Waston=1.99					

4. 논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정도를 파악하고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를 높이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는 5점 만점에 3.59 ± 0.48 점이었는데, 선행연구[26]에서는 3.33 ± 0.70 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긍정적 사고 개념을 중년여성을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13 ± 0.82 점이었다. 선행연구[27]에서도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강상태가 중간 정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노화불안은 5점 만점에 3.04 ± 0.63 점으로 지각된 건강상태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는 노화불안이 3.24 ± 0.53 이었으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그룹이 '보통이다', '나쁘다'라고 응답한 그룹보다 노화불안 점수가 낮아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삶의 의미는 7점 만점 4.80 ± 0.90 점이었는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연구가 거의 없어 그 정도를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t = -2.471, p = .015$), 총 월수입($F = 4.24, p = 0.17$), 취미 유무($t = 2.74, p = .007$), 월경 상태($F = 4.85, p = .009$), 1주일 평균 운동 횟수($F = 2.77, p = 0.44$)에 있어서 삶의 의미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행연구[27]에서는 삶의 의미가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나 학력, 월경상태, 경제상태,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 결과 총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 5.02 ± 0.91 점으로 500만원 이하 4.48 ± 0.98 점보다 삶의 의미가 높았고, 월경상태는 폐경기인 여성들이 4.98 ± 0.90 점으로 규칙적인 월경상태의 여성들 점수 4.47 ± 0.76 점보다 삶의 의미가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27]와 차이가 있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긍정적 사고와 지각된 건강상태($r = .43, p < .001$), 긍정적 사고와 삶의 의미($r = .54, p < .001$),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의미($r = .31,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7, 28, 29]. Steptoe et al.[28] 연구에서는 실제 긍정적 사고를 하는 노인들이 더 나은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Moskowitz[29]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환자들이 더 나은 건강행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

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건강상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삶의 의미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30, 31] 긍정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30].

긍정적 사고와 노화불안($r = -.20, p = .021$),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r = -.46,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존 연구에서도[32, 33]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Levy et al.[32]에서는 실제 긍정적 사고를 높였더니 노화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Wurm et al.[33]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노화불안을 줄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들의 건강상태를 높이고 노화불안을 낮추면서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Lynch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면 노화불안이 높아졌고[34]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점점 악화할 것을 걱정하여 노화에 대한 불안 정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년기부터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노화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년 여성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은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중년기의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35]. 특히 중년여성의 건강상태는 노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최근 들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36-40]이 개발되고 효과 또한 검증된 바 있으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Noh et al.[37]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프로그램이 폐경기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긍정적 사고를 유의미하게 향상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화불안을 낮추고 긍정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노화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며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는 기초가 되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39, 40].

하지만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r = -.10, p = .28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선행연구[41, 42]와 차이를 보인다. Krause의 연구[41]에서는 노화불안이 삶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고 Dutt et al.[42]에서는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ynch[34]와 Bodner et al.[43]의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이 삶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나타나 아직은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 사이의 관계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beta=.52, p<.001$)와 월경상태($\beta=-.22, p=.003$)는 삶의 의미($F=32.49, p<.001$)를 32.8%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긍정적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사고가 삶의 의미를 증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긍정적 사고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시사하므로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긍정적 사고가 중년 여성의 삶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긍정적 사고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화불안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 및 삶의 의미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사고로 나타났기에 향후 긍정적 사고 향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중년여성이 갖는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폐경 생활을 유지하고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에서 중년여성을 편의표집 하였고에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없어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폐경과 노화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찾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중년여성의 긍정적 사고와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중재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H. Chang & J. N. Sohn. (2020). Stress,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genera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middle-aged people. *In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Research & Development*, 11(4), 770-775. DOI : 10.37506/ijphrd.v11i4.7494
- [2] C. K. Kim. (2010). A qualitative study on depression experiences of middle aged depress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4), 1783-1806. DOI : 10.15703/kjc.11.4.201012.1783
- [3] K. Kim. (2020).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menopausal women: A nationwide stud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2), 8505. DOI : 10.3390/ijerph17228505
- [4] C. D. Ryff & B. Singer.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DOI : 10.1207/s15327965pli0901_1
- [5] H. Song. & S. Sung. (2017). The effect of the search for meaning on subjective well-being in Undergraduates and Middle-Aged Adults :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Presence of Mean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3), 843-870. DOI : 10.23844/kjcp.2017.08.29.3.843
- [6] S. H., Kim & S. H. Park. (2017). The relationship study on age difference between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The relationship

- between meaning level in life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arch for meaning among 10's, 20's and 40'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1(1), 61-78.
DOI : 10.21193/kjspp.2017.31.1.004
- [7]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rler (2006). The meaning of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80-93.
DOI : 10.1037/0022-0167.53.1.80
- [8] D. R. Won, S. J. Kwon & K. H. Kim.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2), 211-225.
- [9] H. J. Kim, Y. H. Oh, G. S. Oh, D. W. Suh, Y. C. Shin & J. Y. Jung.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767-784.
DOI : 10.11111/jkana.2015.21.1.122
- [10] H. K. Chang. (2020).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of the middle-aged class. *Medico Legal Update*, 20(4), 41327.
DOI : 10.37506/mlu.v20i4.2007
- [11] M. M. Farmer & K. F. Ferraro. (1997).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mechanisms of health declin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8-311.
DOI : 10.2307/2955372
- [12] E. J. Yeun, Y. M. Kwon & Y. B. Lee. (2007). Factors influencing health percep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A questionnair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 611-628.
DOI : 10.23844/kjcp.2017.08.29.3.843
- [13] J. Han. (2011). The roles of self and soc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health, self-perception of ag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Doctoral dissertation,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14] S. R. Suh & H. J. Choi. (2013). Aging anxiety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aged adul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4), 464-472.
DOI : 10.7475/KJAN.2013.25.4.464
- [15] J. Jeong & S. Chung. (2023). The effects of support expectation and policy trust on anxiety about aging among the middle-aged: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reparation for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3(5), 719-744.
DOI : 10.31888/JKGS.2023.43.5.719
- [16] S. M. Lynch.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DOI : 10.1177/0164027500225004
- [17] M. T. Abbasi Shavazi., M. Hosseini., G. Ariaei Gohar. & A. Ranjbaran. (2023). Aging, anxiety and inequality: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bout aging and gender inequality among women in Shiraz City (Iran). *Elderly Health Journal*, 8(2), 60-67.
DOI : 10.18502/ehj.v8i2.11544
- [18] H. Y. Kim. (2020). Factors affecting aging anxiety in middle aged wome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563-573.
DOI : 10.5762/KAIS.2020.21.6.563
- [19] Statistical Korea. (2023). 2023 Senior citizen statistics. Daejeon.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27252
- [20] H. J. Kim, Y. Oh, G. S. Oh, D. W. Suh, Y. C. Shin & J. Jung.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767-784.
DOI : 10.11111/jkana.2015.21.1.122
- [21] D. L. Speake, M. E. Cowart & K. Pellet. (1989). Health perceptions and lifestyles of the elderl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2), 93-100.
DOI : 10.1002/nur.4770120206
- [22] S. H. Kim & Y. H. Yom. (2011).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bereaved old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2), 695-707.
- [23] K. P. Lasher & P. J. Faulkender. (1993). Measurement of aging-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DOI : 10.2190/1U69-9AU2-V6LH-9Y

- [24] H. Lee & M. A. You. (2019). Development of an aging anxiety scale for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14-25.
DOI : 10.4040/jkan.2019.49.1.14
- [25] M. F. Steger. (200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Doctoral disserta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6] H. K. Chang. (2020). Aging anxiety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aged wome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thinking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3), 223-230.
DOI : 10.21032/jhis.2020.45.3.223
- [27] G. J. Park. (2002). Factors influencing the meaning of life for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2), 232-243.
DOI : 10.5762/KAIS.2020.21.6.563
- [28] A. Steptoe, C. Wright, S. R. Kunz-Ebrecht & S. Iliffe (2006). Dispositional optimism and health behavior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associations with healthy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5), 444-450.
DOI : 10.1093/gerona/61.5.444
- [29] B. L. Fredrickson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DOI : 10.1037/0003-066X.56.3.218
- [30] J. T. Moskowitz, J. R. Hult, C. Bussolari, & M. Acree (2011). Positive affect predicts lower risk of AIDS mortality. *Psychosomatic Medicine*, 73(3), 228-235.
DOI : 10.1037/a0023560
- [31] M. E. P. Seligman &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DOI : 10.1037/0003-066X.55.1.5
- [32] B. R. Levy, M. D. Slade, S. R. Kunkel & S. V. Kasl. (2002). Longevity increased by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61-270.
DOI : 10.1037/0022-3514.83.2.261
- [33] S. Wurm, C. Tesch-Römer & M. J. Tomasik (2007). Longitudinal findings on aging-related cognitions, control beliefs, and health in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2(3), 156-164.
DOI : 10.1093/geronb/62.3.P156
- [34] S. M. Lynch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DOI : 10.1177/0164027500225004
- [35] S. R. Suh & H. J. Choi. (2013). Aging anxiety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aged adul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4), 464-472.
DOI : 10.7475/kjan.2013.25.4.464
- [36] C. R. Straight, C. L. Ward-Ritacco, & E. M. Evans (2015). Association between accelerometer-measured physical activity and muscle capacity in middle-aged postmenopausal women. *Menopause*, 22(11), 1204-1211.
DOI : 10.1097/gme.0000000000000447
- [37] E. Noh, J. Kim, M. Kim & E. Yi. (2020). Effectiveness of SaBang-DolGi walking exercise program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menopausal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8), 6935.
DOI : 10.3390/ijerph17186935
- [38] E. Isenmann, D. Kaluza, T. Havers, A. Elbeshausen, S. Geisler, K. Hofmann, U. Flenker, P. Diel & S. Gavanda (2023). Resistance training alters body composition in middle-aged women depending on menopause - A 20-week control trial. *BMC women's health*, 23(1), 526.
DOI : 10.1186/s12905-023-02671-y
- [39] F. Felice, M. Silvia & M. Monica (2023). Move your body, boost your brain: The positive impact of physical activity on cognition across all age groups. *Biomedicines*, 11(6), 1765.
DOI : 10.3390/biomedicines11061765
- [40] G. Wallbank, A. Haynes, A. Tiedemann, C. Sherrington & A. C. Grunseit. (2022). Designing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for women aged 50+: a qualitative study of participant perspectives. *BMC Public Health*, 22(1), 1855.
DOI : 10.1186/s12889-020-09463-1

- [41] N. Krause. (2004). Stressors arising in highly valued roles, meaning in life, and the physical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5), S287-S297.
DOI : 10.1093/geronb/59.5.s287
- [42] A. J. Dutt, H.-W. Wahl & F. S. Rupperecht. (2018). Mindful vs. mind full: Processing strategies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ing experiences and depressive symptoms. *Psychology and Aging*, 33(4), 630-642.
DOI : 10.1037/pag0000245
- [43] E. Bodner, A. Shrira, Y. Hoffman, Y. S. Bergman. (2021). Day-to-day variability in subjective age and ageist attitud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6(5), 836-844.
DOI : 10.1093/geronb/gbaa125

김 자 숙(Ja-Sook, Kim)

[정회원]



- 2000년 2월: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질적연구, 간호교육
- E-Mail : jskim-98@kunsan.ac.kr

김 수 현 (Suhyun, Kim)

[정회원]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4년 3월~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간호교육, 건강증진, 다문화간호
- E-Mail : ksh136112@mnu.ac.kr